

# SRI

## 정책리포트

2018. 03. 15.

# 수원시 베이비부머의 현황 및 대응방안

한연주

도시행정연구실 연구원, joanna1118@suwon.re.kr

### 요약

- 베이비부머란 출산율이 급격하게 증가한 특정시기에 태어난 출생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출생자를 의미함
- 베이비부머를 위해 일본에서는 일원화된 체계 및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였으며, 국내의 서울시와 부산시는 관련 조례 제정 및 연구, 지원센터 등을 운영하여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2017년 12월 말 기준, 수원시에 거주하는 베이비부머는 147,436명으로 전체 인구의 12.3%를 차지하며, 이는 65세 이상 노인인구(9.3%)보다 규모가 큰 거대 인구 집단임
- 베이비부머는 노인과 다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성화된 별도의 정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원시에서는 베이비부머를 위한 기초연구와 이에 대한 대응도 미비한 상황임

### 정책제안

- 베이비부머를 위한 수원시 대응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세부과제들이 요구됨
  - ① 정책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및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 ② 민·관의 일원화된 전달체계 및 컨트롤타워 구축
  - ③ 인생 재설계를 위한 균형잡힌 정책 개발
  - ④ 수원시 특성화 정책 및 베이비부머의 관계망 확장을 위한 정책 개발
  - ⑤ 베이비부머 집단 내부의 차이에 따른 정책 개발



#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연구의 배경

- 베이비붐(baby boom)은 특정 시기에 출생하는 아이의 수가 폭증하는 현상으로 이 시기에 태어난 출생자를 베이비부머(baby boomer)라고 부름. 베이비붐 세대의 구분은 각 나라마다 차이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한국 전쟁 이후 출산율이 급증한 1955년부터 국가 주도의 가족계획이 본격적으로 실시되기 전인 1963년까지 출생한 인구를 지칭함

[표 1] 한국, 일본, 미국의 베이비붐세대 연령 정의

구분	한국	일본	미국
출생연도	1955년~1963년	1947년~1949년	1946년~1964년
세대명	베이비부머	단카이세대	베이비부머

- 베이비붐 세대는 경제적으로 궁핍한 시기에 태어났지만 1962년부터 시작된 경제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던 세대로, 산업화, 노동시장, 가족구조 등 다양한 측면에서 경험을 현재의 노인세대와는 달리함. 또한 베이비붐 세대는 이전 노인세대와 달리 교육수준이 높고 사회참여의 욕구도 높은 상황임(초외수 외, 2015; 정경희 외, 2010)
  - 현 세대 노인과는 다른 특징과 욕구를 갖고 있는 베이비부머의 노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베이비부머의 특성을 반영한 특성화된 서비스와 정책 개발이 필요함
- 2017년 말 기준, 수원시 베이비부머의 인구는 147,436명으로 전체 인구의 1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9.3%)보다 규모가 더 큰 상황임
  - 2017년 말 기준, 베이비부머의 연령은 만54세~만62세로 노화의 과정에 있으며, 2020년이 되면 1955년생이 65세가 되기 때문에 노인인구는 지금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노동시장에서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고 예비노인 집단이기 때문에 정책에서 중요한 대상임. 그러나 그동안 수원시에서는 현 노인세대와 관련된 연구에만 집중되었으며, 베이비부머와 관련된 연구는 정책적 우선순위와 관심대상에서 상대적으로 배제됨

- 본 연구에서는 베이비부머와 관련된 현황 및 선진사례 등을 분석하여 향후 베이비부머를 위한 수원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보다 세부적으로는 ① 베이비부머와 관련된 국내·외 사례 분석, ② 베이비부머 관련 기본계획 및 지원정책 검토, ③ 2차 자료 분석을 통한 수원시 베이비부머의 현황 분석, ④ 수원시 베이비부머를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II. 베이비부머 관련 기본계획 및 정책 검토

### 1 기본계획

#### 1)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4~2018)

- 사회보장기본법에 의거하여 2014년도에 처음으로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14~ '18)」이 수립됨. 본 기본계획에서는 베이비부머와 관련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회공헌활동 지원, 퇴직 후 재취업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신청제도 도입, 취업아카데미 설립 등을 제시함

[표 2]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4~2018)의 베이비부머 관련 정책

구분	베이비부머 관련 추진 계획
생산적 노년을 위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륜과 전문성을 갖춘 베이비부머들의 은퇴 후 자기만족도와 성취감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지원</li> </ul>
퇴직 후 재취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0세 이상 근로자가 주된 일자리에서 점진적으로 퇴직하면서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신청제도 도입</li> <li>• 퇴직(예정자)들의 제2의 인생설계 지원을 위해 생애 재설계 컨설팅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하는 취업아카데미 설립 확대</li> <li>• 사회공헌일자리사업(角년 3천명), 산업현장교수단('14년 303명) 등 퇴직전문 인력의 전문성 경험을 활용한 일자리 확대</li> </ul>

자료 : 관계부처합동(2014),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4~2018)

#### 2)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 노인복지 정책 위주로 진행되던 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과는 달리 2011년부터 추진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에서는 ‘베이비붐 세대 고령화 대응 체계 구축’ 과제가 추가되면서 정책대상자를 65세 이상 노인에서 베이비부머까지 확장함 (정경희 외, 2010)
- 2015년에 수립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16~'20)에서는 베이비부머를 위하여 여가문화 콘텐츠 개발, 고령자 문화·여가 인프라 개선, 평생교육 활성화 등을 제시함

[표 3]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의 베이비부머 관련 정책

구분	베이비부머 관련 추진 계획
고령친화형 콘텐츠 개발	베이비부머(예비노인세대)·노인세대 또는 전세대가 아울러 즐길 수 있는 여가문화 콘텐츠 개발
고령자 문화·여가 인프라 개선	기존 노인세대와 베이비부머세대의 욕구 및 특성 차이를 반영,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체계 확립 노후준비지원센터,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주민자치센터, 문화센터, 시니어클럽 등과 서비스 연계·협력 강화
계층별 맞춤형 평생교육 활성화	다문화·경력단절여성·베이비부머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대학의 맞춤형 특화프로그램 확충·연계하여 인생 이모작 지원 (예) 실버케어전문가 등

자료 : 보건복지부(2016),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 3) 제1차 노후준비 지원 5개년 기본계획(2016~2020)

-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2016년도에 「제1차(’16~’20) 노후준비 지원 5개년 기본 계획」이 수립됨
- 본 계획에서 베이비부머와 관련된 내용은 노후준비 서비스 활성화 방안의 ‘노후준비 홍보 활성화 및 노후준비서비스 참여확산’에 포함되어 있음
  - 노후준비서비스 활성화 방안은 ①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에 걸친 종합적 노후준비 서비스, ② 믿을 수 있는 고객 맞춤형의 노후준비서비스 정책수단 구축, ③ 노후준비서비스의 내적·외적 여건 확충 및 강화, ④ 노후준비 홍보 활성화 및 노후준비서비스 참여 확산 등 4개 영역의 과제로 구성되어 있음
- 노후준비 홍보 활성화 및 노후준비서비스 참여 확산은 베이비부머 세대를 주된 대상으로 하며 이들이 은퇴하기 전 최소 1회 이상 노후 준비 서비스(노후준비 진단·상담·교육)를 받도록 하는 것을 제시함

## 2 정책

### 1) 베이비부머 세대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 ‘베이비부머 세대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자를 비영리기관에 사회공헌활동으로 연계하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됨

- 세부 사업으로는 베이비부머 마에스트로, 모닝/이브닝 애프터 맘, 종이접기 아저씨, 스마트 에티켓 교육, 아동학습 및 진로지도 지원이 있으며, 월 20만원(32시간)~40만원(64시간)의 활동비를 지원함

**[표 4] 베이비붐 세대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구분	내용	
대상	1953~1965년생 중 사회공헌활동을 희망하는 자	
세부 사업	베이비부머 마에스트로	경영분야 전문 경력의 베이비붐 세대가 농어촌 지역의 영농자 및 예비 창업자· 취업자에게 직무에 필요한 컴퓨터 교육 실시
	모닝/이브닝 애프터 맘	여성 베이비붐 세대가 맞벌이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가정 아동의 어린이집 동행 등교 및 방과 후 수업보조 등 실시
	종이접기 아저씨	남성 베이비붐 세대가 아동들에게 종이접기 교육 등 레크레이션 강사로 활동
	스마트 에티켓 교육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 방법 등 SNS 관련 교육 실시
	아동학습 및 진로지도 지원	지역아동센터 등 기관에서 취약아동 대상 학습지도와 진로교육 등 실시

자료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Ⅲ. 국내 · 외 사례분석

#### 1

#### 해외 사례

##### 1) 일본

-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인 1947년부터 1949년 사이에 출생한 자로 ‘단카이 세대’라고 표현되기도 함
  - 일본에서 베이비붐 세대가 형성된 원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45년에 시행된 해외 거주 일본인의 귀환(歸還) 정책에 의한 인구증가(사회적 요인)와 이들의 출산에 의한 자연증가(자연적 요인)에 기인한 것임
-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 중 1947년생은 2012년도에 만65세 인구에 도달하여 2007년도에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이 절정에 달함(변루나 외, 2011)
-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는 한국의 보건복지부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후생성으로 지원 체계를 일원화하여 지원하였으며, 시정촌에서는 단카이 세대를 위하여 노인클럽과 실버인재센터 등을 지역마다 운영함
  - 자원봉사와 여가생활 등을 희망하는 단카이 세대를 위해 접근성이 높은 지역사회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노인클럽(일종의 자원봉사단체)을 활성화시킴
  - 실버인재센터에서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였으며, 일자리와 자원봉사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틈새 일자리 발굴, 공익성 일자리 등도 연계함
- 일본은 베이비붐세대를 위하여 일자리 뿐만 아니라 사회참여도 활성화하고자 하였으며, 지역사회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일원화된 체계로 단편적이거나 중복적인 사업을 최소화 하였다는데 시사점이 있음
  - 그밖에도 일본은 베이비부머들의 사회참여 및 사회기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턴십 프로그램, 인재은행 등록 및 인재양성 사업, 창업보육 지원, 취업 및 창업 지원 등을 추진 하였으며, 이런 정책 등은 기존의 노인을 위한 지원사업과 연결되도록 설계함(보건복지부, 2011)

2 국내 사례

1) 서울특별시

- 서울시는 은퇴가 예정된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하여 2013년도에 전국 최초로 인생이모작 지원센터를 개소하였으며, 2014년에 ‘베이비부머 응원 종합계획’을 수립함
  - 현재 인생이모작지원센터는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으로 변경됨
- 2015년 1월에는 시 행정조직을 개편해 서울시 복지본부 내에 ‘인생이모작지원과’를 신설하였으며, 같은 해 4월에는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
- 2016년 4월에는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을 설립하여 베이비부머를 포함한 장년층(만50세~64세)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은 50+정책 사업을 총괄 기획하고, 50플러스 캠퍼스 운영과 50플러스 센터를 지원하는 컨트롤타워 및 싱크탱크의 역할을 수행함



[그림 1] 서울시 50+플러스 재단 사업 관련 추진체계

- 본 재단에서는 50플러스 정책 및 사업평가 지표 개발 연구, 50플러스 중장기 비전 및 전략 연구, 매뉴얼 개발, 당사자(50+현장 활동가) 연구 등 다양한 연구 활동을 실천과 함께 진행하고 있음

[표 5] 서울시 50플러스 재단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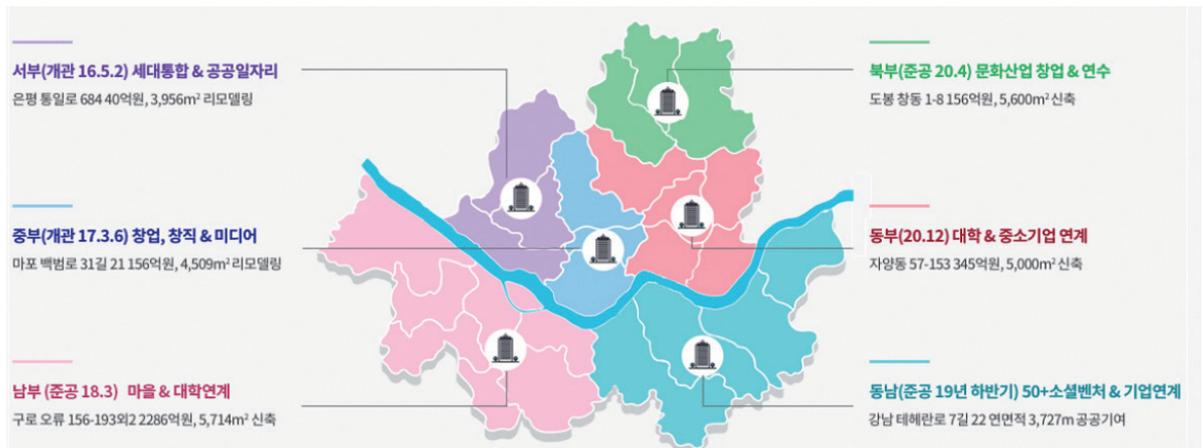
구분		사업내용		
정책 개발	정책·기획연구	정책연구, 기획연구, 기초연구, 실행연구		
	정책포럼	서울시민 그리고 유관기관 및 전문가 등 정책 토론		
	50+당사자연구	지원자격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50+세대(만50~64세)	
		지원내용	연구지원금 500~1,000만원	
		연구기간	약 5개월	
		연구주제	50+세대의 삶과 관련된 연구(지정, 자유주제 등)	
	50+국제포럼	연1회 개최		
정책동향리포트	국내 50+동향, 해외 50+동향, 서울시 50+동향, 50+정보			
50플러스 캠퍼스 운영				
창업 지원(사회적가치공유형 창업, 기술형 창업, 소상공형 창업 등) 및 인재뱅크				

자료 : 서울시 50플러스재단 홈페이지(<https://50plus.or.kr/org/index.do>)

- 서울시 50플러스 캠퍼스는 권역별 허브 플랫폼의 기능을 수행함. 구체적으로는 교육부터 일자리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종합지원센터이자 복합문화공간으로 50+상담센터, 교육, 일자리 등을 지원함

과정	세부내용	
50+상담센터(필수)	• 맞춤형 학습설계, 생애설계 7대 영역 상담 및 컨설팅	
교육지원 (학기제 운영)	인생재설계학부	50+인생학교(공통 필수), 주제별 탐구 등
	커리어모색학부	양코르커리어 특강(공통필수), 제3섹터, 로컬/주거, 관광/여행, 등
	일상기술학부	문화여가기술, 몸·마음 챙김기술, 생활기술
활동지원	• 커뮤니티 지원사업 '커뮤니티 플러스'운영 • 커뮤니티 공간 및 공유사무실 운영	
일자리지원	• 사회공헌형 일자리 발굴 확산, 50+일자리 모델 발굴 및 확산 • 50+일자리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그림 2] 서울시 50플러스 캠퍼스의 진행과정



자료 : 서울시 50 플러스재단 홈페이지(<https://50plus.or.kr/campus.do>)

[그림 3] 서울시 50플러스 캠퍼스의 지역별 담당

- 서울시 50플러스센터는 지역사회 기반 플랫폼으로 사회공헌 아카데미 및 인생재설계 교육, 상담, 사회 참여활동 및 커뮤니티 등을 지원함
- 결과적으로, 서울시는 베이비부머와 관련하여 민과 관의 추진 체계가 명확하며, 베이비부머의 당사자들의 참여를 권장하고 있음. 또한 시정철학이 반영된 지원정책, 실천과 연구가 함께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음
  - 관에서는 복지본부 내 인생이모작지원과, 민에서는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에서 50플러스 캠퍼스와 센터의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담당함
  - 베이비부머와 관련된 정책에서도 서울시정의 방향인 ‘지역사회 기반’, ‘공유(共有)’, ‘당사자 참여주어’ 등이 반영되어 운영되고 있음 (예) 50+경험공유 플랫폼 개발연구, 50+ 당사자 연구, 커뮤니티 플러스 등
  -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에서는 ‘50+현장 실행용 교육프로그램 매뉴얼 개발 연구’, ‘50+정책 및 사업평가 지표 개발 연구’ 등 실천과 연구가 함께 진행되고 있음

## 2) 부산광역시

- 2015년 부산복지개발원에서 ‘부산광역시 베이비부머 노후복지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 연구를 수행함

- 부산시에서는 베이비부머의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6년 1월 부산광역시 노인복지과에 장노년지원팀을 신설함. 같은 해 6월 8일 「부산광역시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16년 ‘50+세대, 신(新) 행복문화 창출을 위한 베이비부머 생애 재설계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함
  - 본 조례에서는 베이비부머를 포함한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년층을 대상으로 함
- 현재 베이비부머와 관련된 지원정책은 주로 ‘부산광역시 장노년일자리 지원센터’를 통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장년층(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50~64세)과 노년(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65세 이상)층의 일자리에 집중되어 있음
  - 부산광역시는 부산광역시 노인취업교육센터, 부산광역시 고령인력종합관리센터 등을 확대·개편하여 2016년 10월부터 ‘부산광역시 장노년일자리 지원센터’로 지정함. 본 센터에서는 교육, 일자리 지원, 인턴십 프로그램, 공공일자리사업, 사회참여, 동아리, 일자리취재단 등을 운영하고 있음

**[표 6] 부산광역시 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 사업내용**

구분		내용	
기관명		부산광역시 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	
설립일		2016년 10월(지정)	
지원근거		부산광역시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2016.6.8.제정)	
대상		장년기(만 50~64세) 및 노년기(만 65세 이상)	
사업내용	교육	과정	교육상담 → 취업교육 → 수료증 수여 → 사후관리 → 취업알선
		내용	취업준비교육, 정보화교육, 생애재설계교육, 평생교육 등
	일자리	- 종합일자리정보(워크넷 연계), 인생이모작일자리 정보 제공	
		- 기업연계형사업단(만 60세 이상)	
	인턴십	- 장년인턴십(만 50세~65세 미만)	
		- 시니어인턴십(만 60세 이상)	
	공공일자리사업		
	사회 참여	- 사회공헌활동사업(만 50세~65세 미만)	
		- 전문자원봉사단(만 50세 이상)	
	동아리		
장노년일자리 저널, 일자리 취재단, 베이비부머 칼럼			
장노년 일자리 종합 안내콜센터 운영			

주 : 베이비부머 연령대상자와 관련된 사업만 정리함  
 자료 : 부산광역시 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busan50plus.or.kr/>)

- 또한 부산광역시는 부산광역시 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 이외에도 베이비부머의 은퇴와 노후준비 증가에 따른 정책개발의 기초자료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2017년 말부터 ‘베이비부머 통계’를 발표하고 있음

**[표 7] 부산광역시 베이비부머 통계 내용**

구분	내용
법적근거	통계법 제18조에 의한 국가승인통계(승인번호 제 202016호)/일반, 가공통계
작성주기	매 2년 ▶ 2017년 12월 최초 발간
기준시점	2016.12. 31. 기준
대상	부산광역시 주민등록상 내국인 중 베이비부머 및 관련 세대
방법	행정자료 및 통계자료 등 17종 수집 및 재가공
내용	인구 및 가구, 일과 주거, 은퇴와 노후준비, 질병과 건강, 등 5개 부문
담당	기획행정관실 기획담당관실 통계분석팀

- 결론적으로, 부산광역시는 장년층과 노년층을 연결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도 특히 일자리에 집중하고 있음. 또한 이를 위하여 민에서는 일자리 연계와 조정을 위한 부산광역시 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에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음

[표 8]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의 베이비부머 관련 정책 비교표

구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상		장년기(만50~64세)	장년기(만 50~64세), 노년기(만 65세 이상)
추진 체계	관	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3개팀 14명)	통계분석팀(베이비부머 통계 담당) 사회복지국 노인복지과 장노년지원팀(1개팀 9명)
	민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컨트롤 타워) 50플러스 캠퍼스 및 센터	부산광역시 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
계획 수립	계획명	베이비부머 응원 종합계획(2014년 수립)	50+세대, 신(新) 행복문화 창출을 위한 베이비부머 생애 재설계 지원종합계획(2016년 수립)
조례 제정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2015.4.2.)	「부산광역시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2016.6.8.)
지원내용		정책개발 및 포럼	-
		교육 지원 및 상담	교육 지원 및 상담
		당자사 연구 및 활동비 지원	-
		일자리 지원 및 창업 지원	일자리, 인턴십
		인재 بانک	사회참여(봉사) 및 동아리
	동향 리포트 발간	베이비부머 칼럼 발간	
특징		1) 민과 관의 추진 체계가 명확함 2) 지원정책에 시정철학이 반영됨 3) 실천과 연구가 함께 진행됨 4) 베이비부머 당사자의 참여 권장	1) 장년과 노년기의 연계 2) 베이비부머와 관련된 통계 생산 3) 일자리에 집중됨

### 3)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 서울시와 부산시를 제외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현재 베이비부머와 관련된 지원 센터를 운영하는데 집중하고 있음

- 대전광역시는 2015년부터 50+세대(만50~64세)를 대상으로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자리 구인·구직, 취·창업 교육, 사회공헌 활동 및 사회참여 촉진, 커뮤니티 활동 촉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
- 울산광역시는 2016년부터 예비노인(베이비부머) 및 노인(만65세 이상)을 대상으로 내일설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본 센터에서는 베이비부머 및 노인 세대를 위한 1:1 맞춤형 취업, 사회참여활동지원을 위한 상담, 교육(직업능력개발교육, 평생학습지원교육), 일자리 정보(1:1 맞춤형 상담 및 일자리 연계), 사회참여(노인사회활동지원, 내일사회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

- 충청남도는 예비노년세대(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예비노년세대의 건강하고 활동적인 삶을 위한 ‘맞춤형 개인교육’을 목적으로 인생설계아카데미, 카운슬러 양성과정, 이모작 열린학교, 건강증진교육 등의 프로그램 지원함
- 경기도 부천시는 은퇴자 및 예비 은퇴자를 대상으로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제2인생 설계 교육 프로그램, 사회공헌·재능나눔 프로그램, 공공영역 취업예정자 교육 프로그램, 동아리(communit) 활성화 여건 조성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함

[표 9] 광역 및 자치단체의 베이비부머 관련 센터 운영 현황

구분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충청남도	경기도 부천시
대상	50+세대(만50~64세)	예비노인(베이비부머), 노인(만64세 이상)	예비노년세대(베이비부머)	은퇴자, 예비은퇴자
위탁체	대전복지재단	한국폴리텍대학 울산캠퍼스	청운대학교 산학협력단	직접 운영
조례명	대전인생이모작 지원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15.4.17.)	울산광역시 동구 퇴직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17.6.29.)	충청남도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2015.10.30.)	부천시 인생이모작 지원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2015.1.12)
개소일	2015년 10월 6일	2016년 3월 30일	2016년 12월 22일	2016년 1월 19일
지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자리 구인·구직</li> <li>• 취·창업 교육</li> <li>• 사회공헌 활동 및 사회참여 촉진</li> <li>• 커뮤니티 활동 촉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 맞춤형 취업 (상담 및 일자리 연계)</li> <li>• 직업능력개발 교육</li> <li>• 평생학습지원 교육</li> <li>• 사회참여 (노인사회활동지원, 내일사회활동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생설계 아카데미</li> <li>• 카운슬러 양성과정</li> <li>• 이모작 열린 학교</li> <li>• 건강증진 교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인생 설계 교육</li> <li>• 사회공헌·재능나눔</li> <li>• 공공영역 취업예정자 교육</li> <li>• 동아리 활성화 여건 조성</li> <li>• 공공·민간분야 일자리 정보 제공</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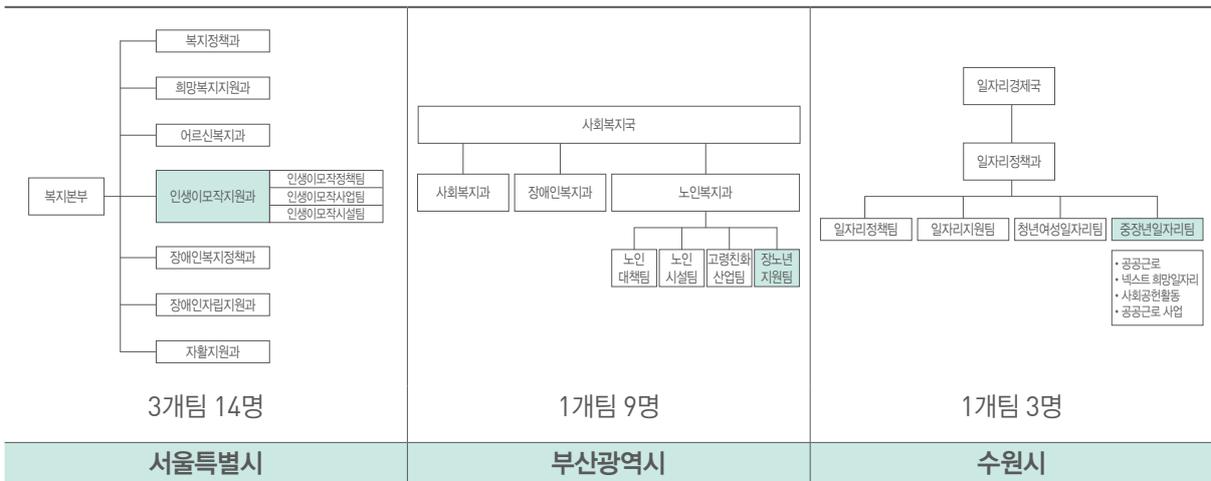
### 3 시사점

○ 첫째, 베이비부머의 실태 및 욕구파악이 선행되어야 함

- 서울시와 부산시는 먼저 베이비부머의 실태 및 욕구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을 개발함. 그러나 수원시에서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2015년에 실시한 「수원시 고용지표 분석과 맞춤형 일자리 확대에 관한 연구」이외에는 전무한 상황임
- 베이비부머와 관련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라도 이들의 실태 및 욕구를 파악하는 것이 시급하며, 정책을 개발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성과 및 매뉴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둘째, 컨트롤타워 및 노인정책과 연계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함

- 사업의 중복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과 관에서 컨트롤타워 할 수 있는 주체가 필요함
- 서울시와 부산시의 경우 사회복지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부서에서 베이비부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특히 부산시는 노인복지과 ‘장노년지원팀’에서 베이비부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서 베이비부머가 65세가 되면 노인복지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로 운영하고 있음
- 현재 베이비부머는 예비 노인이나 만 65세 미만이라 노인복지정책과 관련된 서비스에서는 제외되고 있음. 그러나 곧 베이비부머도 만 65세에 도달하며 성공적 노화를 위해서는 베이비부머와 노년층이 연결되는 정책이 필요함
- 그러나 수원시는 65세 이상은 ‘복지여성국 노인복지과’에서 담당하고 베이비부머와 관련된 정책은 ‘일자리경제국 중장년일자리팀’에서만 담당하고 있어 단절된 체계로 일자리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음



○ 셋째, 일자리, 건강, 여가, 사회참여 등 다양한 영역의 정책 개발이 필요함

- 부산시의 경우 일자리 정책에 집중되어 있으나, 베이비부머의 퇴직 이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다양한 분야의 욕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일자리 뿐만 아니라 삶의 다양한 영역의 정책 개발이 필요함

○ 넷째, 수원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정책 개발이 필요함

- 지역마다 특성과 여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서울시와 부산시 등의 정책을 무작정 따라하기 보다 서울시와 같이 시정방향이 반영된 정책을 개발 하는 것이 필요함

- 다섯째, 베이비부머 집단 내부의 차이에 따른 접근이 필요함
  - 서울시와 부산시의 정책에서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대상은 경제활동, 그 중에서도 소득이 안정화된 은퇴한 베이비부머 남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그러나 베이비부머에서 내에도 다양성과 이질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의 동질적인 집단으로 간주하기 보다는 다양한 방식으로 유형화하여 접근하는 것이 필요함

## IV. 수원시 베이비부머의 현황 및 특성 분석

### 1 수원시 베이비부머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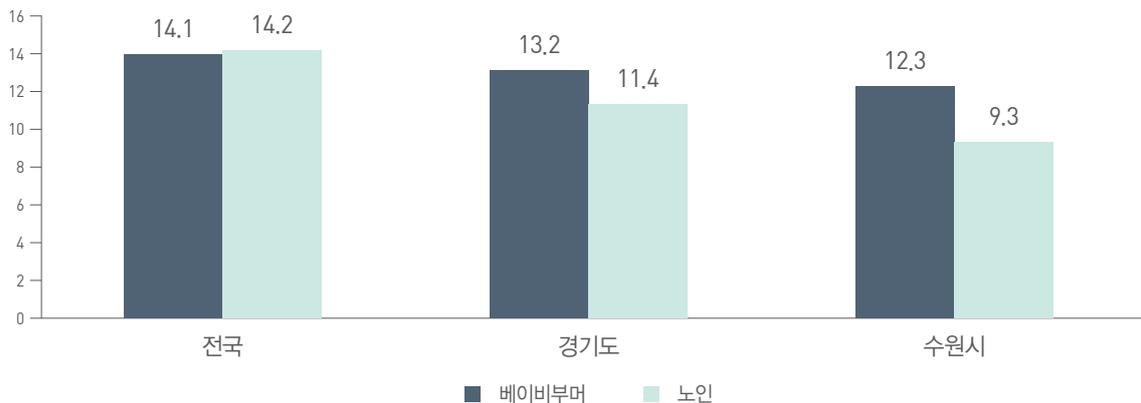
- 수원시의 베이비부머는 147,436명으로 전체 인구의 12.3% 수준이며 이는 65세 노인 인구(9.3%)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2017년 말 기준)

[표 10] 전국, 경기도, 수원시 베이비부머 인구분포(2017.12)

(단위: 명, %)

구분	베이비부머			노인(만65세 이상)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전국	7,306,037 (14.1)	3,652,004 (50.0)	3,654,033 (50.0)	7,356,106 (14.2)	3,130,925 (42.6)	4,225,181 (57.4)
경기도	1,702,944 (13.2)	867,690 (51.0)	835,254 (49.0)	1,467,835 (11.4)	634,552 (43.2)	833,283 (56.8)
수원시	147,436 (12.3)	74,931 (50.8)	72,505 (49.2)	111,667 (9.3)	47,480 (42.5)	64,187 (57.5)

주 1 : 2017년 말 기준이며, 계의 비율은 전체 인구 대비 비율을 의미함  
 주 2 : 베이비부머의 인구는 출생년도를 만 나이로 계산하여 산출한 수치임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주 : 전체 인구 대비 비율을 의미함

[그림 5] 전국, 경기도, 수원시의 베이비부머 및 노인 인구 비율

- 연령별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베이비부머 중 후기 베이비부머 집단(50대 후반)이 전기 베이비부머 집단(60대 초반)보다 규모가 더 큼
  - 베이비부머 중 가장 낮은 연령인 만54세의 경우 수원시(12.3%), 경기도(11.5%), 전국(10.8%)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높은 연령인 만62세는 전국(9.8%), 경기도(9.1%), 수원시(8.4%) 순으로 나타남

**[표 11] 전국, 경기도, 수원시 베이비부머의 세부 연령(2017.12)**

(단위: 명, %)

구분	전국	경기도	수원시
계	7,306,037(100.0)	1,702,944(100.0)	147,436(100.0)
만54세(1963년생)	792,265(10.8)	196,300(11.5)	18,110(12.3)
만55세(1962년생)	879,476(12.0)	215,359(12.6)	19,630(13.3)
만56세(1961년생)	912,277(12.5)	217,964(12.8)	19,755(13.4)
만57세(1960년생)	920,380(12.6)	217,415(12.8)	19,143(13.0)
만58세(1959년생)	849,219(11.6)	196,184(11.5)	16,979(11.5)
만59세(1958년생)	775,456(10.6)	180,396(10.6)	15,171(10.3)
만60세(1957년생)	767,925(10.5)	171,545(10.1)	13,907(9.4)
만61세(1956년생)	692,708(9.5)	152,573(9.0)	12,302(8.3)
만62세(1955년생)	716,331(9.8)	155,208(9.1)	12,439(8.4)

주 1 : 2017년 말 기준

2 : 베이비부머의 인구는 출생년도를 만 나이로 계산하여 산출한 수치임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 2 수원시 베이비부머의 특성

- 수원시에서는 현재까지 베이비부머와 관련된 실태 및 욕구조사가 별도로 시행된 적이 없기에 매년 발간되는 ‘수원시 사회조사 보고서’를 활용하여 수원시 베이비부머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함
  - 수원시 베이비부머와 관련된 현황은 2017년에 실시된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본 현황은 별도의 실태조사가 아닌 기존 연구에서 베이비부머와 관련된 대상을 추출해 분석한 것이기에 한계가 존재함
- 사회조사 보고서 결과에 의하면, 베이비부머와 현재 65세 노인은 교육 수준, 가구 월평균 소득 등에서 차이가 존재함

- 베이비부머의 교육수준은 현재 노인보다 높음. 구체적으로는 베이비부머 집단의 교육 수준은 ‘고졸’이 46.4%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반해 노인은 ‘초졸 이하’가 45.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가구의 월평균 소득에서는 베이비부머의 소득이 노인집단보다 높음. 베이비부머 집단에 서는 월평균 가구 소득이 ‘300~400만원 미만’이 20.2%로 가장 많은데 반해 노인 집단에 서는 ‘100만원 미만’이 38.8%로 가장 많음
- 여가생활 만족도는 베이비부머와 노인집단 모두 동일하게 ‘보통’이 가장 높게 나타남. 그러나 여가생활에 불만족하는 경우 그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차이가 나타났는데, 베이비부머 집단에서는 ‘경제적 부담 때문’이라는 응답이 53.7%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반해 노인 집단에서는 ‘체력이나 건강이 좋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46.4%로 가장 높게 남
- 노후준비 여부에서 베이비부머는 ‘있음’이 70.7%로 나타나는데 반해 노인 집단에서는 43.3%만 노후준비를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집단 모두 동일하게 노후준비로 ‘연금(공적 및 사적 연금)’이 가장 높게 나타남
- 노후준비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베이비부머 집단에서는 ‘준비할 능력이 없다’는 응답이 38.5%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반해 노인 집단에서는 ‘자녀에게 의존한다’라는 응답이 38.2%로 높게 나타남
- 봉사활동 경험은 두 집단 모두 ‘없음’이 가장 많았으나 그 비율은 노인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남

[표 12] 수원시 베이비부머의 현황

(단위: 명, %)

구분		베이비부머	노인
교육 수준	초졸 이하	42 (7.6)	225 (45.1)
	중졸	86 (15.6)	82 (16.4)
	고졸	255 (46.4)	136 (27.3)
	대학교 졸업	141 (25.7)	38 (7.6)
	대학원 졸업	26 (4.7)	18 (3.6)
	계	550 (100.0)	499 (100.0)
가구 월평균	100만원 미만	26 (7.9)	121 (38.8)
	100~200만원 미만	54 (16.3)	105 (33.7)
	200~300만원 미만	50 (15.1)	38 (12.2)
	300~400만원 미만	67 (20.2)	22 (7.1)
	400~500만원 미만	54 (16.3)	16 (5.1)
	500~600만원 미만	27 (8.2)	6 (1.9)
	600~700만원 미만	18 (5.4)	1 (0.3)
	700만원 이상	35 (10.6)	3 (1.0)
계	331 (100.0)	312 (100.0)	
여가생활 만족도	매우 만족	34 (6.2)	27 (5.4)
	약간 만족	128 (23.3)	91 (18.2)
	보통	254 (46.2)	297 (59.5)
	약간 불만족	115 (20.9)	69 (13.8)
	매우 불만족	19 (3.5)	15 (3.0)
	계	550 (100.0)	499 (100.0)
여가생활 불만족 이유	경제적 부담 때문에	72 (53.7)	34 (40.5)
	시간 부족	28 (20.9)	3 (3.6)
	교통혼잡 및 이용 교통수단이 불편	2 (1.5)	1 (1.2)
	여가시설 부족	3 (2.2)	1 (1.2)
	여가정보 및 프로그램 부족	4 (3.0)	2 (2.4)
	적당한 취미가 없어서	10 (7.5)	2 (2.4)
	체력이나 건강이 좋지 않아서	15 (11.2)	39 (46.4)
	여가를 함께 즐길 사람이 없어서	0 (0.0)	2 (2.4)
	계	134 (100.0)	84 (100.0)
노후준비 여부	있음	389 (70.7)	216 (43.3)
	없음	161 (29.3)	283 (56.7)
	계	550 (100.0)	499 (100.0)

구분		베이비부머	노인
노후준비 사항 (중복응답)	연금(공적 및 사적 연금)	349 (60.7)	174 (52.9)
	퇴직금	28 (4.9)	12 (3.6)
	예금, 적금, 저축성 보험	146 (25.4)	90 (27.4)
	부동산 운용(임대 수입 등)	46 (8.0)	53 (16.1)
	주식, 채권 등	6 (1.0)	0 (0.0)
	기타	0 (0.0)	0 (0.0)
	계	575 (100.0)	329 (100.0)
노후 준비를 하지 않는 이유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다	5 (3.1)	2 (0.7)
	앞으로 준비할 계획이다	26 (16.1)	4 (1.4)
	준비할 능력이 없다	62 (38.5)	106 (37.5)
	자녀에게 의존한다	8 (5.0)	108 (38.2)
	배우자가 준비하고 있어 따로 준비하고 있지 않다	60 (37.3)	45 (15.9)
	기타	0 (0.0)	18 (6.4)
	계	161 (100.0)	283 (100.0)
자원봉사 경험 유무	있음	61 (11.1)	24 (4.8)
	없음	489 (88.9)	475 (95.2)
	계	550 (100.0)	499 (100.0)

## V. 수원시 대응방안

- 첫째, 정책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수행 및 중·장기 기본계획의 수립
  - 현재 수원시는 베이비부머와 관련한 실태 및 욕구 파악이 전혀 안되어 있는 상태이며, 이로 인해 정책을 개발하는데도 한계가 존재함. 따라서 선행적으로 베이비부머의 실태 및 욕구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 둘째, 민·관의 일원화된 전달체계 및 컨트롤타워 구축
  - 사업의 중복방지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수원시에서도 민과 관의 사업시행을 위한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이 필요함. 특히 수원시는 이미 지역사회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수원시평생학습관, 수원시민자치대학 등의 기존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연계하는 것이 필요함
  - 베이비부머가 65세 이상 노인이 되어도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베이비부머와 노년기를 연계하는 정책 설계 및 체계구축이 필요함. 또한 향후 베이비부머가 모두 65세 이상의 노년기에 접어들면 그 이후에는 장년층 정책으로 변화하는 것이 필요함
- 셋째, 인생 재설계를 위한 균형잡힌 정책의 개발
  - 일자리 뿐만 아니라 건강, 여가·문화, 사회참여 등과 같이 삶의 전 영역에 해당하는 영역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개발이 필요함
- 넷째, 수원시 특성화 정책 및 베이비부머의 관계망 확장을 위한 정책의 개발
  - 수원시의 경우 ‘시민의 정부’, ‘복지시민권’ 등과 같이 수원시정 철학이 반영된 정책을 개발해야 함. 수원시는 ‘마을 만들기’, ‘수원시민자치대학’ 등 시민의 참여와 소통을 중시하고 지역단위 활동이 선도적인 지역이므로 특히 남성 베이비부머들이 은퇴 후 지역사회로 귀환할 수 있는 정책과 지역단위로 활동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
  - 또한 시정 방향에 맞춰 동 또는 구별로 정책 당사자인 베이비부머에게 정책요구를 수렴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다섯 번째, 베이비부머 집단 내부의 차이에 따른 정책의 개발
  - 베이비부머 집단 안에서도 경제력이 있는 베이비부머 집단, 소득계층이 낮은 집단, 여성 집단 등 다양하기 때문에 획일화된 정책보다는 집단별 특징에 맞는 정책 우선순위를 파악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함

---

### SRI 정책리포트는

수원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수원의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시 전반의 다양한 정책 이슈를 발굴하여 분석함으로써 수원시의 비전 설정과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



발행인 | 이재은

발행처 | 수원시정연구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031.220.8001

[www.suwon.re.kr](http://www.suwon.re.kr)

※ 이 정책리포트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수원시의 정책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